

대학주보

동대문구 전세사기 피해, 우리학교 학생도 포함돼

이지수 기자 ssu1404@khu.ac.kr

조병연 기자 choby0309@khu.ac.kr

“이런 일로 만나 뵈지 않았으면 좋았는데...”

지난해부터 벌어진 전세 사기가 대학가로 번지고 있다. 당장 우리학교 학생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회기동과 이문동에 복수의 오피스텔을 소유한 김 모씨 일가의 연속적인 보증금 미반환이 발생했다.

지난 6일 한국외대 인문과학관에서 열린 ‘동대문구 전세사기 피해자 간담회’는 이철빈 전세사기·강동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 공동위원장의 다소 쓸쓸한 인사말로 시작했다. 현장에는 한국외대 학생뿐만 아니라 우리학교 학생과 졸업생을 포함해 20명 남짓한 인원이 참석했다. 장년층 지역 주민과 외국인 유학생 피해자도 보였다.

피해자 모두 보증금 반환과 관련한 불안감을 호소했다. 이 공동위원장은 “결론적으로는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는 것은 이상적인 목표”라며 “동대문구 사례는 대부분이 후순위 임차인이고, 선순위 임차인이라고 하더라도 손실은 불가피한 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금전적인 손실을 최소화한다거나 강제



지난 6일, 한국외대 인문과학관 3층 강의실에서 ‘동대문구 전세 사기 피해자 간담회’가 열렸다. 간담회에는 우리학교 학생을 포함한 동대문구 거주 대학생들과 지역 주민들이 참석했다. (사진=이지수 기자)

퇴거로 쫓겨나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이 현실적인 목표”라고 조언했다.

또한 이 공동위원장은 이어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해선 대항력을 인정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자신의 임대차 관계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이 공동위

원장은 “일단 대항력이 있어야 한다”며, 이는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며 전입신고를 한 경우, 혹은 임차권 등기를 하고 퇴거를 한 경우”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 피해 건물에서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들은 사태가 장기화 시 열악한 주거

환경에 노출될 불안감도 안고 있었다. 간담회에 참석한 우리학교 재학생 피해자 A 씨는 김 모씨 앞으로 온 세금 체납서를 언급하며 “수도세도 밀리는 마당에 건물 관리인도 줄어 청소도 안 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피해자 모임은 우리학교와 한국외대 학생을 포함해 최소 80명 이상

이 피해를 봤다고 주장한다. 우리학교 서울캠퍼 학생지원센터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경찰서와 얘기했을 때는 우리학교 학생 피해자가 7명 정도라고 들었다”고 말했다. 동대문경찰서는 전세 사기 혐의로 김 모씨에 대한 수사를 개시한 상태다.

3면에 계속 →

양캠퍼 5개 학과·학부 국제 ‘자유전공’ 설치

배연우 기자 yeonwoo.bae22@khu.ac.kr
서나은 기자 merlo@khu.ac.kr

양캠퍼스 5개 학과·학부에 해당하는 편제개편이 이뤄졌다. 서울캠퍼 정보디스플레이학과 개편, 국제캠퍼 정보전자신소재공학과와 글로벌한국학과 개편, 식물·환경신소재공학과와 한방생명공학과 통합, 자유전공학부 신설이 그 내용이다. 편제개편은 2025학년도부터 적용된다.

서울캠퍼에서는 정보디스플레이학

과가 미래정보디스플레이학부로 개편됐다. 교육부의 ‘2025학년도 첨단분야 정원 조정 사업’에 선정되며 정원도 33명 순증했다. 정보디스플레이학과 민성욱(전기공학) 학과장은 “기존보다 깊고 전문적인 교육을 위해 학부제 개편을 결정했다”며 “학생 개인이 원하는 분야에 집중할 수 있도록 2개의 세부 전공을 만들어 운영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세부 전공은 소재·발광소재 전공과 구동소재·시스템 전공이다.

국제캠퍼 국제대학 글로벌한국학과는 아시아학과로 개편됐다. 외국인 전용 학과로 모든 재학생이 정원 외로 모집된다. 개편 이유는 러시아 고등경제대학교 운영 중인 복수학위 과정 운영 담당 학과로서의 정체성 확립, 외국어대학 한국어학과와의 유사 프로그램 중복성 해소, 외국인 학생 전용학과로 우수 학생 유치 및 교육 수월성 제고다. 오는 2025학년도부터 아시아학과는

캠퍼스	단과대학	편제개편		비고
		현행	개편(안)	
서울	이과대학	정보디스플레이학과	미래정보디스플레이학부	
		-	자유전공학부	자유전공학부 신설
국제	공과대학	정보전자신소재공학과	신소재공학과	
		식물·환경신소재공학과	융합바이오·신소재공학과	학과 통합 신설
	생명과학대학	식물·환경신소재공학과	융합바이오·신소재공학과	학과 통합 신설
		식물·환경신소재공학과	융합바이오·신소재공학과	학과 통합 신설
	국제대학	글로벌한국학과	아시아학과	

한국학, 중국학, 일본학, 동남아시아학으로 세부 트랙이 나뉘게 된다.

국제캠퍼 자유전공학부는 정부의 무전공 확대 취지에 맞춰 신설된다. 자유전공학부로 입학하는 학생은 무전공으로 입학해 1년의 전공 탐색

기간을 거친다. 이후 2학년 때 전공을 선택하게 된다. 자유전공학부는 오는 2025학년도부터 국제캠퍼 정원 10%에 해당하는 241명으로 운영된다. 교무팀은 “2년에 걸쳐 25%까지 확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